







## 한국 경제 총체적 패턴에 대한 역사적 고찰

글 실는 순서

- 원조로 시작한 한국경제
- 경제개발정책의 본질
- 주요없는 시장개방
- 매번자본의 역사
- 자립경제를 위하여

# 기술 종속, 헤어날 수 없는 늪(?)

## 생산 설비 60% 외국산, 수출액 30% 로열티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자동차산업은 연간 1백만대 생산의 벽을 뛰고 당당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그러나 주요부품 하나 제대로 못만드는 현실에서 수출액의 4분의 1이 넘는 돈이 부풀수입 로열티로 나온다보니 출러나고 있다. 개발 기반에 대한 자본이 소외되는 생산설비의 60%이상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의 흐지 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고, 한국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본질을 알아본다. 이 글은 '월간 일' 89년 1월과 90년 12월 그리고 '한국경제의 투리와 열매(세계길자음)'에서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겉보기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계속해왔다. 지난 80년 까지만 해도 12만 대 정도의 생산고를 기록했던 자동차산업은 매년 20~40%의 성장률로 88년 1백만 3천 6백만대의 생산을 기록했다. 또한 89년 생산고는 1백만대를 넘어 세계 10위를 기록하는 수준이다. 국내 제조업 출신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9%로 이르고 있다. 10년 사이에 10배의 생산증가를 이루어 세계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이다.

## 기술대외증축, 이윤회유출

그러나 이런 끊임없는 성장의 아래에는 기술적 대외증축과 심화된 차별화에 따른 경쟁력이라는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다. 즉 '죽워서 남준다'는 속담과 같이 외국의 거대자본과 고급기술에 뛰어 있는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이부분은 나중에 설명) 남한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거기서 얻은 이윤미지 외국기업에 갖다 바치는 것이다. 88년의 경우 자동차업체는 1억 달러의 부품을 수입, 9천만 달러를 직접적인 기술로 터트렸으며, 89년에는 14억 6천만 달러의 부품을 수입, 7천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했다. 이는 자동차 수출액의 1/4를 넘는 수준으로 주요부품의 국산화율이 58.6%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은 거대한 조립산업이다. 보통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데는 5천여개의 부품이 들어온다. 국내에는 89년 말 1천85개의 부품 생산업체가 자동차회사의 13개업체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중 95.1%인 1천32개의업체가 종소기업 수준에서 벗어나거나 못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자기 기술을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기관능력을 가진 업체는 전체의 5.3%인 57개사로 불과한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부품생산업체는 모기업이나 모기업이 연결해준 외국업체의 기술제휴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미디어는 외국의 부품과 기술을 이용한 조합기공을 하고 있는 것이 국내 자동차

차종차산업체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시장에 대한 제한이다. 한기자 예를 들어 84년 당시 미국 GM과 합작을 막은 대우의 평범 생산계획에 의하면 차량은 판매방식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뉘진다. 2275만 차량은 국내에서 대우가 판매해 그 뒷의 국가에 대해서는 대우 GM의 판매망을 이용해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2275만 차량은 GM에 의해 북미지역과 다른 국가에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수출차량의 경우 90% 이상이 북미지역으로 나가게 되는데(여전 당시), 대우는 이에 대한 판매권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대우는 판매처에 배우자 살기만 하면 그 역할은 끝나는 것이고, 그 차가 얼마에 팔려면 GM의 미진이 일어나게 대해서는 전혀 간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대우는 국내외재벌이 일과 외국의 거대자본의 하청으로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새 기술(사실은 낡은 기술)이 들어오면 생산설비도 바꿔야 한다. 기술력이 종속되어 있는 만큼 생산설비의 조립과 외국기업에 종속돼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업청난 돈(낮은 기술로 물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투자를 만드는 쓰이는 것이다. 기술로 알려지는 로열티대로 지금하면서 말이다.

## 계속되는 생산력 증속

결론적으로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제국주의 독점자본과의 어떠한 부조도 시도하지 않았다. 물론 몇몇 중소기업들이 독자적 기술개발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소기업의 한계와 함께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배후에 있는 정부에게 필요한 기술이 도입이 되면 정부에게 국제 기술 차별을 이루기 위한 기술도 있는 거리는 막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자동차업체의 연구개발에서는 지난 87년 2.71%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의 경우 이미 '현물 간 것' 같다. 90년 당시 광고문에서 자주 등장했던 DODIC 앤진이나 EDI 자동제어부분장치나 하는 것들은 사실 선진국에서는 70년대 초부터 사용해온 것들에 지나지 않는데.

국내에 제조기술이나 설비 혹은 부품을 대주하는 선진국의 자동차회사들은 한국 자동차공업의 기술적 발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의 자동차업체를 자기네들의 하청생산업체나 남은 부품의 공급처 혹은 낮은 기술을 팔아먹는 대상 정도로 밖에 인식하는 때문이다. 사실은 그것이 선진국들이 원하는 시장경쟁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에 주로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전하기 어렵다. 한국에 부품과 낮은 기술을 파는 것은 선진국의 이운 쪽을 넓혀주지만, 기술적 차이가 가능하도록 고급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경기적으로 그들에게 손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기술

기술에 대해 비판하고, 그들이 기술개발의 의욕을 끼워 기위해 경쟁기업에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 차별화를 이루었을지도. 또한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독자기술을 위한 제품생성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외국 기관들은 차별화를 통해 국산차를 버리고 외제품을 받아들이었다.

또한 기본적인 연구개발의 인력확보도 재

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정리 이화진 기자

## 6. 70년대 경제개발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들

## 정부의 강압적 민족수탈

## '한강의 기적' 이루어내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인한 실업임금의 상승으로 비용경쟁력의 약화라는 상황에서 유신체제는 강경장치체제와 중화화 공업화 전략이 시작되었다.

산업적 특혜지원을 통한 급속한 공업화전략은 산업자본의 지배구조를 대자본 중심으로 재편하였다(독점화). 특히 국유기업은 대외의존적 성격으로 인해 세계시장의 영향에 대한 대응이 취약하고(대외의존성) 국가주도의 경제적 자원원과 산업화 정책지침에 의존하여 성장하게 되면서(국가의 존성) 재벌이라

는 비장성으로 전개되는 경제상황으로 나가게 되는데(여전 당시), 대우는 이에 대한 경제개발계획이 있음을 알았지만 경제개발을 전제로 했던 정부의 경제개발 방식, 대자본에 대한 경제 지원의 원칙은, 자본주의의 이론에 부합하기 위한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민족수탈 정책과 외국시장에 의존하는 심화로 인한 지립적 발전의 가능성이 봉쇄된 대외증속의 문제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포함. 외국으로부터 새 기술(사실은 낡은 기술)이 들어오면 생산설비도 바꿔야 한다. 기술력이 종속되어 있는 만큼 생산설비의 조립과 외국기업에 종속돼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업청난 돈(낮은 기술로 물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투자를 만드는 쓰이는 것이다. 기술로 알려지는 로열티대로 지금하면서 말이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새 기술(사실은 낡은 기술)이 들어오면 생산설비도 바꿔야 한다. 기술력이 종속되어 있는 만큼 생산설비의 조립과 외국기업에 종속돼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업청난 돈(낮은 기술로 물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투자를 만드는 쓰이는 것이다. 기술로 알려지는 로열티대로 지금하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를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을 봉파시킨 광주항쟁은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을 봉파시킨 광주항쟁은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수탈을 통해 협상하는 산업자본은 특히 대자본의 축조업자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 正道경영 초우량 LG

## 화학의 목표는 인간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화학의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 화학강국이 미래강국

첨단사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에

모든 산업의 핵심기술은 화학-

화학이 앞선 나라가

미래의 새로운 강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21세기 화학강국으로!

LG화학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화학工业株式会社(한국화학)

고도화 기술을 연구·개발·제작·판매

석유화학·화학·제철·제지·제지·제지

현지·아시아·포스터스 등 최첨단 고도화 기술 개발

우글리 농지·생물화학·화학·석유화학·화학

생활용품·화장품·의약품·식품·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제품·연구·개발

LG 화학

LG화학·LG석유화학·LG실트론·LG얼라이드시그널·LG오플스코닝·LG MMA

## 학술 정보



## 학술논단 - 새노동법의 본질과 숨겨진 독소조항

## 새노동법, 노동자 소외된 정치적 야합물

## 임단투와 연계 노동자의 힘을 보여줘야

지난 3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노동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날치기 통과를 계기로 위력적인 전국총파업을 불러 일으켰던 '개악노동법'이 몇 가지 조항만 수정된 가운데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를 '제2의 노동법 개악'으로 규정하고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대책으로 전개하는 한편 임단투와 연계하여 노동법 철회를 위한 총파업에도 불사할 것을 밝혔습니다.

## 제2의 노동법 개악

'민주노총 합법화와 여타 조합의 전면적인 개악'으로 집약될 수 있는 이번 노동법 개악안

의 독소조항의 특징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로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에 대한 자본의 투자력이 강화되었다. 실질적인 임금인하와 노동시간의 연장을 가져오는 변형근로제(개별 단위 56시간 하루), 24시간제, 노동시간에 맞서기 위한 대중적 단결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 학술 단신

## 자주대학 새사회 복강좌

## 한양대학교에서 한달동안

- 3/18 교육·사회변화 속에서 바리번 교육개혁 (김진경)  
19 예술·아디가지기와 와설이고 어디까지가 예술인? (이광수)  
20 대학·대학지성, 지성인, 실천지성, 민족 지성(김행주 청년정보문화센터 부소장)  
25 언론·한국언론의 현주소 (손석희)  
26 통일·한국통일방안과 국가방안의 비교 분석(한준우 한충원 조종위 위원장)  
27 경제·21세기 경제, 비전은 있는가? (임영태 한양대 교수)  
4/1 정치·새로운 정치문화와 청년의 역할 (추미애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2 상·운동으로 본 폐미니즘 (조혜연 여성운동가)  
3 과학·문화으로 본 북한의 과학기술 (최영준 한국과학기술원원장)  
8 문화·인증가요, 노래로 그리는 세상 (윤민기 '통일아되며' '백두산' 작곡가)  
10 특강·8월 연예평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기원 한충원 5기 임시의장)

주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문의처: 290-0101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강좌

## 근대사회와 탈주의 공간

- 서울사회과학연구소가 '근대사회와 탈주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청학강좌를 마련했다. 오는 24일(월)부터 5월 30일(금)까지 매주 월, 수, 금曜일마다 열리는 이번 강좌는 역사의 새로운 영토, 현대사상의 발생학, 유목적 사유와 환경의 정치라는 3개의 소주제로 12명의 강사와 30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26 맑스와 알프레드(이용주)
  - 3/28 유목적 사유와 환경의 정치(윤수종)
  - 4/2 플뢰즈: 나체와 철학(고병권)
  - 4/7 어린이의 역사(조현근)
  - 4/9 맑스와 그랑시(허재영)
  - 4/11 플뢰즈: 사건의 철학(이진경)
  - 4/18 프로이드와 리히터(신현기)
  - 4/19 플뢰즈/기바리: 유파의 사회이론(이용주)
  - 4/21 부랑자/광인의 역사(한규현)
  - 5/2 플뢰즈/기바리: 카프카와 소수화(윤수종)
  - 5/5, 12 시간: 광인의 역사(이진경)
  - 5/14 니체와 푸코(박구현)
  - 5/21 니체와 플뢰즈(고병권)
  - 5/23 기타리: 근대정치와 횡단성(허재영)
- 접수문의: 886-2246

으로 노사협약과 단체협정의 무력화를 통해 자본의 자본으로 - 혹은 이를 신자주주의적 공장이라고 부른다 - 축적을 보장하려는 이런 개악안은 민주노총운동의 존립 기반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노조집단이 임금 지급권은 5년 이후 전면 금지하고 그 이전이라도 단체적으로 급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유권무선택을 노리고 있고, 정기기간 중 대체근로제·통상·사업·장·내에서 허용하던 노개와 공약안을 풀이·사업·장·임금·지급·요구와 관련한 경쟁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으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각종의 제도를 통한 조합 조직들을 약화시켜 파산·이해·조직들을 만들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 대중이 단체를 결집하는 만큼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한국당 이른바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평가는 3개의 소주제로 12명의 강사와 30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이들은 핵심적인 악법이면서도 정점이 안되었던 매우 심각한 조항이었다.

## 알리지 않은 독소조항

앞서 정리했던 사항이 비교적 잘 알려진 내용이라면 주목되고 있지 않지만 매우 주요한 내용

으로는 노사협의회법이 있다. 이 조항은 제목도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노동자와 조합 참여여부·파산수를 넘지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임을 통해서 ·파산수를 넘으면 조합의 추천으로 ·름을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나중에 노사협의회 실의 내용을 대폭 확대했는데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통해 논의되며 해결되던 복지제도, 인사제도, 교육훈련, 임금체계 등이 이제는 노사협의회 수준에서 허용하던 노개와 공약안을 풀이·사업·장·임금·지급·요구와 관련한 경쟁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으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각종의 제도를 통한 조합 조직들을 약화시켜 파산·이해·조직들을 만들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 대중이 단체를 결집하는 만큼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한국당 이른바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평가는 3개의 소주제로 12명의 강사와 30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이들은 핵심적인 악법이면서도 정점이 안되었던 매우 심각한 조항이었다.

## 여야합의 본질

이러한 악법이 이번에는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 시종일관 노동법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지 못했던 국인회는 전국 총파업의 대중이 몰아

치자 부랴 부랴 내부 입장 정리를 들어 끊기지만 '자본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무제한의 노동력 확보'라는 방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힘을 힘으로 한다.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노동법 합의 탈기이 연기되었던 것은 노동계의 반발을 염려한 정치적 제스처이었을 이후 더욱 분분하였다. 자민련의 경우 실제하는 민주노총이 지도하는 총파업을 경험하면서 민주노총의 존립을 인정하는 만큼 양보한 셈이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 대중이 단체를 결집하는 만큼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한국당 이른바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평가는 3개의 소주제로 12명의 강사와 30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이들은 핵심적인 악법이면서도 정점이 안되었던 매우 심각한 조항이었다.

## 노동운동진영의 대응방향

제2의 노동법이 발표되는 조건에서 노동운동의 대응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 곽 탁 성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편집위원〉

## 더럽고 위험하고 비경제적인 원자력 발전

## 끊이지 않는 방사능 유출사건, 핵폐기물을 관리비만 매년 36억원



원자는 원자력의 세포 속에 침투한 방사성 물질이 방사능을 유출하는 것을 확대시킨 사진이다. 오른쪽은 원자력에 맞설 수 있는 원자력을 활용한 기행 강연사의 사진이다.

원자는 원자력의 세포 속에 침투한 방사성 물질이 방사능을 유출하는 것을 확대시킨 사진이다. 오른쪽은 원자력에 맞설 수 있는 원자력을 활용한 기행 강연사의 사진이다.

리에 원자력을 도입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입문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연쇄도 동조하면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정작 심각한 것은 현재 핵폐기물이 출어져 나오고 있지만 안전하게는 플루토늄과 그 폐기물처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진남 영동의 경우와 같이 기체방사능 폐기물과 대량방출로 인력이 높은 경주 핵발전소 주변에서 지난 95년 96년동안 기행가족이 또 대량으로 발생했다. 지난 94년 기행동들을 출연을 살펴보면 항문과 성기가 없거나 빠만 있고 살이 없는 등의 기행소스가 35미리, 사신 또는 폭이 질병으로 죽은 소 90미리, 일어 암청하고 뱃이 뒤풀리거나 배에 흐이 나는 등의 기행개기(미리), 폭이 질병으로 죽은 개 27마리, 기행개기 12마리, 기행여가 68번 출현하여 있다. 항상 안전성 논란이 있어온 우리나라의 간두(CANDU) 원자력에서 방출되는 기체방사능 중 다른 폴로보다 활동하고 많은 삼중수소가 이런 이상현상의 주범이다. 인체는 삼중수소와 일반적인 비방사성수소를 구별하지 못해서 삼중수소에 오염된 환경에서는 인체의 수소 중 일부는

기전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대안은 있는가? 복합화학의 경주만 하더라도 3.4

기로 원자력 1기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대형이 아니라더라도 첨무부하율으로 적격인 소형 열병합발전은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폐기물을 처리하는데는 그 태생부인 사회적 필요에 따라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핵폭탄 제조를 위해 둘러되었던 엄청난 수의 과학자, 기술자, 지원 및 관료들이 대대적인 끝나자 원자력발전이라는 털구를 만들어내면서 다른나라

나라로 기자

한국을 움직입니다  
세계를 움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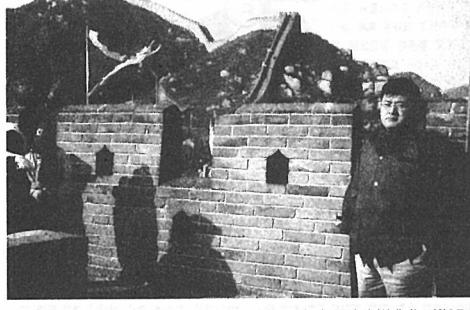


## 글 심는 순서

1. 변모하는 중국
2. 중국의 대학, 대학생
3. 세계인의 외대, 동문들을 만나
4. 중국과 홍콩, 대만과의 통일 문제
5. 석학한터부-중국의 문제점
6. 개혁방법
7. 중국식 사회주의

외대학보  
중국취재기

## 능력 많은 외대인, 이름없는 외대



사진은 CBS 특파원으로 중국에서 활약하는 민경중 중국어과 동문. '12억 중국이 일어난다'라는 기획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리디오 부문상을 수상했다.

해외에 나가면 외대의 진가는 알 수 있다. 중국 마침한 충고도 들었다.  
에는 본교에서 정장 많았다. 그것은 북경동문회, 이번 호에서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상상동문회를 각각 꾸리고 정모임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모교 사랑을 실었다.  
다. 취재원은 선배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후배들을 질타하는

편집자

중국취재를 하는 동안 느끼한 중국음식은 우리에게 깊이 먹는 중국인들의 기쁨과 식습관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런 우리에게 동문들은 구제해주었다. 무얼 빙답게 맞아주며 한국식당으로 퇴근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풍력 필요없이 풍부한 취재를 할 수 있었다.

북경과 상해 통찰에 약 90명 가량이 동문회에 가입되어 있다. 중국인은 학부, 대학원생까지 치면 100명이 넘는다. 중국어과 출신들은 대부분이 북경동문회의 주요 회원들은 중국어과 출신이 아니었다. 그만큼 그들과 상관없이 많아 나와 있다. 열자, 삼성 등 대학교에 계신 분들이 많고 무역전시공사, 관광공사, 항공사, 언론사 등으로 고루 퍼져 있다. 대사관에는 총영사를 비롯한 다섯명의 본교출신이 있다.

마이너에서는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닐 것이다. 중요한 건 그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진출도는 물론 활약상도 단연 돋보인다.

얼마 전 동소련에 사령관 후 CBS 라디오를 들었던 사람이라면 중국 특파원 민경중 기자의 이

물을 들었을 것이다. 그는 중국어과 85학번이다. CBS특파원으로 북경에 가족과 함께 나와 있다. 그리고 외대인들은 황당함이 미물고 있는 곳이 북경 총영사관이란 걸 알아도 그 영사관의 대로인 총영사가 본래 출신이라는 것은 몰랐을 것이다. 인도어와 72학번 석동연 참사관이 그곳의 주민이다.

그들을 만난 건 북경에 도착한 이를 나이였다. 박재우 주간교수의 주선으로 그들과 이보우 외 환경동문회장(중국어과 부회장),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밀고하고 중국에서 시급재벌이 된 '사이트 아리랑' 레스토랑 대표 김천호(정의 72)등으로 만났다.

석동연과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상황은 당시의 중국 얘기에 네이터 빠져 멀리하고 있는데 김천호 선배가 대회의 주제를 떠올리며 베키아 했다는 황당한 문제제기로부터 말을 시작했다. 외대출신은 상상이 비둘기처럼 그자체 진취적인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시장으로 모교에는 기아이 밤 12시를 넘기고 있다.

'K'에는 행사는 잘 참여하지 않는 게 개인주의로 베키아를 자랑스러워 한다. 중국에서도 우리와 K에는 속적으로 별 차이는 나지 않는에

우리 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질책했다.

석동연은 심지어 젊은 동문들은 자신이 외대 출신이라는 조차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모교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다. 인도어와 72학번 석동연 참사관이 그곳의 주민이다.

그들은 만난 건 북경에 도착한 이를 나이였다. 박재우 주간교수의 주선으로 그들과 이보우 외 환경동문회장(중국어과 부회장),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밀고하고 중국에서 시급재벌이 된 '사이트 아리랑' 레스토랑 대표 김천호(정의 72)등으로 만났다.

석동연과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상황은 당시의 중국 얘기에 네이터 빠져 멀리하고 있는데 김천호 선배가 대회의 주제를 떠올리며 베키아 했다는 황당한 문제제기로부터 말을 시작했다. 외대출신은 상상이 비둘기처럼 그자체 진취적인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시장으로 모교에는 기아이 밤 12시를 넘기고 있다.

'K'에는 행사는 잘 참여하지 않는 게 개인주의로 베키아를 자랑스러워 한다. 중국에서도 우리와 K에는 속적으로 별 차이는 나지 않는에

우리가 상상해 못마땅한 모양이다. 인도어와는 오늘 이후로 반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날 모임을 정리하고 오는 김천호선배의 집으로 리본을 먹여 들어 갔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중국에서 한국라면은 꼭 먹고 먹어야하는 선배의 권리 때문이었다. 또 리마니 너무나 그립기도 했기에.

시즌일관 우리는 깃단사를 연발했다. 달걀羹은 리면에 한글에 직접 가지고 오셨다는 깁치도 맑게 먹을 수 있으니까.

세벽 2시가 넘어서야 선배의 집에서 밭갈음을 옮길 수 있었다. 그곳은 아파트방에서 손수 나와주었다. 일일이 우리의 손을 짚어주면서 선배의 권리 때문이었다. 또 리마니 너무나 그립기도 했기에.

시즌일관 우리는 깃단사를 연발했다. 달걀羹은 리면에 한글에 직접 가지고 오셨다는 깁치도 맑게 먹을 수 있으니까.

세벽 2시가 넘어서야 선배의 집에서 밭갈음을 옮길 수 있었다. 그곳은 아파트방에서 손수 나와주었다. 일일이 우리의 손을 짚어주면서 선배의 권리 때문이었다. 또 리마니 너무나 그립기도 했기에.

중국기행 취재단

##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 희망과 사랑을 노래한다.

1996년 겨울, 우리는 '노동법·인기부법 개악'이라는 시련을 겪어 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 그곳에서 늘 노래로 함께 하던 사람마다 있다. 자연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로 노래하는 학교 적인 포크 그룹 '노마비'를 이 그룹이다. 오는 14일(금)부터 23일(일)까지 신촌아트리움 '희망'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위하여' 노래하고자 한다.

'노마비'의 이번 콘서트는 그동안 함께 일해오던 대표와의 결별 후 홀로서기 시도 한다는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콘서트는 그들의 대표곡인 '백두산', '나이 서늘에 우린' '우리의 노래'가 그늘 진 편에 헛별



노래마을 콘서트 '희망을 위하여'

한 줌 될 수 있다면 '등의 곡과 10월에 나을 예정이나 4월은 음날 수록과 증 및 꽂을 선보일 예제임다. 또한 자신들 민의 콘서트가 아닌 노래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열려있는 콘서트를 만들 예정이다.

대한각에서 많은 공연을 자제는 노래마을은 지난 10여년 동안 때로는 삶의 무게를, 때로는 우리 자신을 노래했다.

그러나 그들이 잊지 않

은 것은 항상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이다. 오늘 무엇을 해야 지 모르고 있다면 희망으로 가득찬 라이브 무대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오. 우. 정  
<서양·불이2>

## 외대연극회 제53회 신입생 환영 정기공연

## 부조리속에서 찾는 사랑의 의미

지난 12일(수)부터 15일(토)까지 외대연극회가 부조리극 '장엄한 애식'을 무대에 올렸다. 소강연에서 개최된 이번 공연은 열악한 무대장치, 조명 등에도 불구하고 아내아이답지 않은 능숙한 연기로 인해 관객들에게 박수와 환영을 받았다.

어느나의 기획적인 시장을 받고 설렁한 꽃을 깨비노자는 어머니의 사랑에 헌신하지 못하고 밤마다 여자를 찾아낸다. 그속에서 깨비노자는 그를 만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육구충족을 위해 죽여버리려고 하지만 우연히 살아난다. 그러나 월은 깨비노자 걸을理解和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매집하고 묵이는 것을 택한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깨비노자는 어머니의 사랑에 헌신하지 못하고 밤마다 여자를 찾아낸다. 그속에서 깨비노자는 그를 만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육구충족을 위해 죽여버리려고 하지만 우연히 살아난다. 그러나 월은 깨비노자 걸을

는 것을 느끼고 드디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다.

이 연극을 보고 있노라면 수 많은 의문들이 찾아온다. 대체 무엇인가 왜 저러지? 저 사랑은 어떤 인물인가?라는 질문은 끝이 지나지 않는다. 그만 이해하는데 수월한 연극은 아니다.

극장 차지 나오는 밀은 '사랑' '행복' 이런 단어들이나 한 인물은 사랑을 외치고 있고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행위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개념, 개념과 너무도 다른 것을 박수와 환영을 주는 우리는 사랑이라기보다 행복이라기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깨비노자는 소녀 리를 만나기 전에는 사랑이나 행복이라 느끼고 있다가 해밀리에게 헌신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있어 사랑이라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헌신 것처럼 체계질 당하게 됨으로 회개되고 어두운 방에 가누는 것이다.

연출을 맡은 이경아(서양·한교 4)은 부조리극은 인간존재자체를 무의미(부조리)하고 설정하고 인간의 모든 삶을 역시 무의미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부조리극에서는 사람끼리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설정이 되기도 한다. 그는 "우리는 단지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해석은 관객이 하는 것이다."며 관객의 참여성을 강조했다.

홍인화 기자

## 문화단신

## 용인

연극회 '연결'  
21회 정기공연 '안티고네'

## 서울

## 97년 새로운 봄을 위하여

'100자 2회 창작곡 발표회'가 지난번 학교에서 열린다. 이어 15일(수) 19일(수) 우리학교 노천극장에서 4시 반부터 열린다.

새내기들에게 학교와의 불가리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발표회는 신입생을 환영하는 의미가 크다. 교외에서 치러졌던 지난 공연때 자리가 없어서 서운했던 이가 많았던 만큼 벌써부터 몇몇 이들이 기습을 들뜨게하고 있다.

앞공연에는 풍물과 국악의 걸들이, 각단대 노래와 연합공연 등이 있을 예정이니 본공연에서는

100자를 비롯한 융통체, 맥박, 외대연극사업단, 외대노래창단 '청년' 등 많은 이들이 함께 공연을 펼칠 것이다.

100자로 불리는 배재길(상경·영경 4)군은 어려운데도 도움을 많이 받아온 유월인 유원이 제2회에 놓은 4시 반부터 열린다. 그동안 전쟁의 일정과 함께 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온 이날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온 것이다.

이번 작품을 연출한 유월인 유원은 제2회에 놓은 4시 반부터 열린다. 그동안 전쟁의 일정과 함께 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온 이날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온 것이다.

이번 작품을 연출한 유월인 유원은 제2회에 놓은 4시 반부터 열린다. 그동안 전쟁의 일정과 함께 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온 이날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온 것이다.

제2회에 놓은 4시 반부터 열린다. 그동안 전쟁의 일정과 함께 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온 이날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온 것이다.

제2회에 놓은 4시 반부터 열린다. 그동안 전쟁의 일정과 함께 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온 이날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온 것이다.

제2회에 놓은 4시 반부터 열린다. 그동안 전쟁의 일정과 함께 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온 이날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온 것이다.

제2회에 놓은 4시 반부터 열린다. 그동안 전쟁의 일정과 함께 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온 이날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온 것이다.

제2회에 놓은 4시 반부터 열린다. 그동안 전쟁의 일정과 함께 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온 이날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온 것이다.

제2회에 놓은 4시 반부터 열린다. 그동안 전쟁의 일정과 함께 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온 이날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온 것이다.

제2회에 놓은 4시 반부터 열린다. 그동안 전쟁의 일정과 함께 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온 이날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온 것이다.

제2회에 놓은 4시 반부터 열린다. 그동안 전쟁의 일정과 함께 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온 이날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온 것이다.

제2회에 놓은 4시 반부터 열린다. 그동안 전쟁의 일정과 함께 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온 이날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온 것이다.

제2회에 놓은 4시 반부터 열린다. 그동안 전쟁의 일정과 함께 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온 이날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온 것이다.

제2회에 놓은 4시 반부터 열린다. 그동안 전쟁의 일정과 함께 예술을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온 이날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온 것이다.

## D.A.L. 시스템과 SOLVER 기능이 내장된!

## 사프 공학용 계산기!

## 제품의 특징



② 리에 꼬리를 무는 대선전 의혹사건 - 92년 대선

# 문민(?) 대통령 뽑기 직전에도 '간첩 사건'

## 이선실, 북송 재일교포 '신순녀'로 위장·입국… 의문투성이

글신는 순서

1. 87년 대선·금강산행과 KAL 폭파 의혹  
2. 92년 대선·줄을 잇는 간첩사건 의혹  
3. 문민 정부에서도 유효한 대북관련 의혹

92년 대선 역시 이선실(남한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대선 후보였던 간첩사건 등 고민은 12건의 간첩사건을 뒤로한 채 처리하게 되었다.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조작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선실 대선 사건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해, 민자·민주·국민당의 각 선거 후보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김대중·김영삼의 이근희 비서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에 민자·국민당은 국민민족의 '에드 캠벨리스'를 자국·국민·민족당의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 간첩사건에는 정기표, 김낙중씨 전보장 당분동의 헉케 인물이 연루되었다. 따라서 대선에서 전보세력으로 불리는 데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보에서는 이에 거대한 조직으로 알려진 이선실 간첩사건과 현대방위가 망신신으로 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한남대 조직사건을 살펴본다.

편집자

92년 10월 6일 안기부는 '북한 권력서열 22위이며 당 정치국 흥보위원인 이선실(여자, 70세 기량)이 최근 10여년간 서양에 접속, 금관금을 거친다는 일모세 등 직급별 10여명을 지휘하여 남한에 '북한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대북규모의 '남한조선노동당'을 결성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또 안기부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및 3개 무전 간첩으로부터 무성전총 3종, 실험 88발, 무전기 4대, 독약 40kg, 난수포 8.2cm 등 공작장비 총 121종 1천 545종을 압수하고, 조직에 기관된 10여명 중 95명을 경거하여 그 중 62명을 간첩 또는 범국 기관에 구속 및 기임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달아난 300여명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수시증언 정치·노동·학원·제야 등 각 분야 험부 간첩·경찰·경찰·영남·호남 지역당 조직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또 '황인기' 이선실에게 포섭해 90년 10월 17일 그녀를 따라 일본·북·노동당에 가입하고 간첩교육을 받은 뒤 공작과 일로 500만엔과 관용 1경 등 도난수표, 북한 조선노동당 간첩·구약 등을 갖고 돌아왔으며, 동생 황인국과 평소 노동운동을 하며 알고 기내 던 핵심 주사와 12명을 조선노동당에 가입시키고, 91년 7월 최회경 등과 함께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해 강원·충북·충남 등 3개 도당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른바 '이선실 간첩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선실이라는 70대의 한 할머니가 차운 행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선실은 1918년 청주생이다. 따라서 80년 영주국한 신순녀가 안기부 발표대로 북한 혁명서기로 활동한 사실과 동일인을 인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문제는 92년 경기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도 관여하여 자신이 남한에 구축해 둔 간첩망을 이용해 북한 공작원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관련됐다는 황인오·손병선·김나중씨 등 '우전간첩망'으로부터 알수했다는 위에서 열거한 구체적인 물증에 믿지 않아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안기부가 발표하는 수많은 간첩사건에서 당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에서도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선실'과 '좌파간첩'들이 그렇게 양터리 공작을 했더라도 한명도 안기부에 검거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선실과 10여명의 직급간첩이 그의 공개직으로 활동했고 계속 증거를 남기며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북한 공작원 모임과 북으로 관련되는 일자리에 이 조직이 적발됐는가, 김합들이 그렇게 대단히 공하게 했던 것인가? 그리고 브루트로 뛰어난 능력을 뒷받침해온 드나들었는데도 왜 아무도 문제를 담담히 보거나 무기력해지는 듯이 있는가 등등이다. 그러나 본보에서는 이선실의 실체를 '앞' 92년 12월과 93년 2월호, '길' 92년 11월호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이선실과 이선화는 동일 인물인가. 안기부와 사건 피의자의 주장과 종합해 볼 때 일치하는 한가지가 '황미나 풍자집'이 있었라는 사실이다. 안기부는 이 할머니를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선실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또 이 할머니가 신순녀라는 이름의 복권된 재일교포로 위장해 80년 영주귀국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74년 일본에 처음 나타났다. 신순녀는 1918년 청주생이다. 따라서 80년 영주국한 신순녀가 안기부 발표대로 북한 혁명서기로 활동한 사실과 동일인을 인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문제는

92년 경기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북송 재일교포가 어떻게 한국에 재입국한

수 있는가. 67년 말 이미 북송이 끝났고 안기부는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선실 같은 고위공작원이 수사기관에서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선실은 이하선으로 유통간 상품을 살펴보자. 89년 12월 마포구 서교동 소재 '전진경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출범하면서 이선실은 이선화로 위장해 500만원으로 구상된 민족해방과 지하철을 구상원이며 조선노동당 입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우리 이모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이모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모님은 무학하고 글씨도 못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이 할머니 일자무식이라는 말인가.

이제

교육재정 확보, 그 고지를 통해 - ③국가보조금, 이렇게 확충하자



## 등록금 고율인상 막을 근본대안, 국가교육재정 확보

### 일반예산·국방예산에서의 확충을 통해 서민부담 없애야

#### 등록금인상 가이드라인의 허구성

정부는 올해, 정부가 스스로 정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여기면서까지 각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5%선에서 억제하도록 지시했다. 교육재정이 GNP의 5%로 늘어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많이 올리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이중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이유에 서 있다.

실제로 사립대학 등록금은 1년에 400~600만원에 이른다. 이는 95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 소득의 10.6%~21.9%, 도시근로자 연간 소득의 14.08~20.36%에 이른다. 계기가 95년에 대학생들이 자출한 사교비용도 250만원이 넘었다. 이 금액 까지 포함하면 농민은 소득의 1/3을, 도시근로자는 소득의 1/4를 대학생 자녀 1명의 교육비로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립대학 자녀를 문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부가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 덕분에 89년 이후 해마다 15%선에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5~5.5%선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올해 정부가 각 사립대학에



국가교육재정확보반인 등록금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한다.

사진은 지난 5월, 교육개혁연대회에서 주최한 국가교육재정 확보와 교육개혁을 위한 토론회의 장면이다.

총장회의에서 사립대학 총장들이 '기여입 학제 추진'을 결의한 것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 있다.

서민들의 고통 덜어줄 교육재정 확보 방안

사립대학 등록금이 해마다 고율로 인상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학교운영비의 3% 정도밖에 안될 만큼 적어 부족한 데 있다.

그리고 아니라 정부와 사립대학 총장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자체한 것은 빛미삼아 '기여입학제'를 추진하려 할 가능성도 높다. 올해 2월에 열린 경북 대학·

등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면

당을 경감시켜 준 게 아니라 도이어 가

증시킨 끝이 되고 말았다. 담배값과 기

다 많은 국고보조금을 쥐어 한다.

물론 정부도 지난 95년 8월 30일, 교육

재정 GNP 5%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GDP 4.11%인 교육재정을 GNP 5%로

늘리기 위해서는 약 9조 5,000억원이 더

필요한 데, 그 중 50%는 담배와 유류에

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학교운영

비의 3% 정도밖에 안될 만큼 적어부

족한 데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 자녀를

당을 경감시켜 준 게 아니라 도이어 가

증시킨 끝이 되고 말았다. 담배값과 기

다 많은 국고보조금을 쥐어 한다.

물론 정부도 지난 95년 8월 30일, 교육

재정 GNP 5%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교육재정을 더 늘려 사립대학에 보

여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방예산을 줄여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네

대통령회가 끝났고, 북한이 더 이상 남한

의 적이 아니란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

최근의 북·미 관계 정상화 움직임은 남

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방예산을 줄여 국방예산을 늘리는 방안은 좋다. 9년 정부 일

기원에서 남은 세계순 잉여금만 해도

1조 3,062억원이나 됐다. 계기가 94년 불

용액도 3,943억원이나 됐고, 94년 사고

이월도 7,994억원이나 됐다. 이 돈은 투

자하면 23,500억원 가량의 교육재정

을 확보할 수 있다.

국방예산을 줄여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네

대통령회가 끝났고, 북한이 더 이상 남한

의 적이 아니란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

최근의 북·미 관계 정상화 움직임은 남

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방예산을 줄여 국방예산을 늘리는 방안은 좋다. 9년 정부 일

기원에서 남은 세계순 잉여금만 해도

1조 6,500억원이나 30만億元 줄이면 3

년동안 4억 9,500억원이 확보된다. 언간

3억달러(2,400억원)나 되는 주한미군주

둔비를 비롯해 낸다 30억달러(23,400

억원)에 이르는 주한미군관련 비용도 교

육재정으로 부하시자 3년간 약 2,000

억원이 확보된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해이다. 그런 만큼 대학구성원은

은 기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래

서 다음에 들어설 정부가 교육재정 확보

와 관련한 대학구성원들의 요구를 올바

로 수용해 만들어야 한다. 어제만 이

것이 김영삼정부의 교육재정 확보방안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비범칙할 수 있다.

### 김 삼 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학원 안정화 대책 부활하다 - ③학생회 불인정

### 성적 빌미로 학생회 불인정

### … 불법운운하며 자금 차단까지

생기는 것이다. 학생회는 과·부속원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학생대표조직이다.

그런데 최근들에 많은 학교의 학생회가 대학당국에 의해 학생회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속명여대와 총학생회장 유해경(사학 4)양은 "대학당국은 학생회장의 성적 좋지 않으면 그 학생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학제에 이 러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학생 차지권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된 과·학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여대도 성적이 2.70이 안되면 학생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까

지만 해도 학생회장의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학생이었는데, 학생회에 통보도 없이 갑자기 큰 쪽으로 자격을 강화한 것이다.

또, 속명여대는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재개하려 하지 않고 있다. 속명여대는 협상을 재개하려는 행사를 모여놓았지만 학생회장이 있는 입장은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총학생회와 음대학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각 단체의 부학생회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학생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

부분의 학생회는 교비를 대학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행사

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 회사로부터 협찬

을 받고 있으며 학우들의 지원금으로 대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학생회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지금 문제이다. 대학 당국으로부터 교비가 지금이 인의는 학생회는 있으며, 학생회장은 협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장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여대 학원자주화추진

위원회 박혜숙(사학 4)양은 "학생회를 민주남부를 통해 조언이나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 걸

지 않아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는 미야

하나"며 학우들이 학생회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이와같이 여러학교의 학생회가 시도한

부분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대학당국의

단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

학당국과 김영삼정부의 학생자치권 탄

압에 맞서 학생대표조직으로 권리

를 되찾아가는 행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여대 학원자주화추진

위원회 박혜숙(사학 4)양은 "학생회를

민주남부를 통해 조언이나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세우는 걸 maç 것이다.

명재권 기자

를 데려와 강의를 했다. 이 수업에 날

이든 한 학생에게 '차리자 비틀기'

나리로 유학을 가든 비틀기'가 아니라

나리에게 낫다는 것이다!!" 〈회〉

파리 제1대학에서 '나비의'와 '너

무얼방'이 있다. 그

들은 등이 연합이라는

조직의 회장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공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동포학생들을

이 편하게 공부할까, 월

세와 대학당국이 '나비의' 아니

다'라고 하자 이들은 꿈으로 봄

생생한 학생들이 무사히 것에 대해

"올림픽"~ 공부 못하는 꿈으로 봄지

도 말랐다"며 분개하며 일어나 프랑

스스로 명령이 일어났다. 〈정〉

프랑스 대혁명 시작

#### 이 물 벌

#### 맡립니다

학교 디자이리 총학생회 사정으로 인해 무상 지급하지 못합니다. 서점에서 2,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종합니다. 〈화생복지위원회〉

#### 모집합니다

축구부 신입부원 모집 상큼한 신입생

장소: 상경대 지하(4614)

#### 왕 산 골

지역문화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기간: 3월20일(목) 14:30분~3시20분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므로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로는 빙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5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30-4112



일기 - 국제 자원봉사자(CSV)의 하루

# 국적과 장애를 넘어선 인간애 봉사를 통해 느끼는 보람과 향수



수필 - 동성애, 이렇게 바라보자

현재, 제1기 한국 국제 자원봉사자(CSV)자리으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쓴이는 94년까지 '페들풀'에서 활동을 했다.

이 글은 글쓴이가 '메리'라는 장애인 활동과 같이 생활하면서 쓴 일기를 본 보에 보내온 것이다.

편집자

11월 12일 일기 중

유난히도 분주했던 하루를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목장을 향해난 창 밖에는 멀리 들판들상 이어진 가로등

이 보이고, 문을 닫고 흑하는 숨을 떨어내며 메리와 함께 집

안에 있어야 하는 회요일. 게다가, 오늘은 메리가 아침마

들리는 간호원이 돌아가고 나서도 침대에 누워 심문안

에 심입해 놓은 노란색의 그 좌약이 녹기를 기다려 나의

도움으로 그 유품한(?) 물을 모로 들리고 한참을 힘들어

대변을 내놓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번씩 찾는 이 행사는 한달에 두세번 정도

는 예외없이 내게도 돌아옵니다. 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리라고는 좋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오늘, 새로운 간호원이 대변을 종이에드로 잘못

갈아놓고 돌아간 덕분에 오늘의 아침은 나와 메리의 적잖

은 당황함으로 몽땅 지나가 버렸습니다.

번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그녀의 정확한 "으나" 부

르는 소리에 내가 조르르 뛰어가 몸을 틀어주었을 때는

이미 중요한 이날의 행사가 시작되고 있었고 간호원의 실

수를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

비단장갑을 긴 오른손으로 급하게 침대를 보호했지만(?)

여전에 생활처음으로 딱구운판한 크기로 떨어지는 동덩어

리를 받아야 했으니까.

방안 곳곳에 베어들이긴 넓새와 그 미장하고 불안정하게

단단한 쪽감은 밀리미터도 재이지 않는 암은 비단을

계대로 이렇게 표현하기 풀듯듯입니다.

충·분·화·다·리고.

그러나 더욱 낭감했던건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늘 밝은

얼굴에 장난기나 기득한 눈빛으로 살짝씩 웃음을 해주던 메

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I'm sorry"를 반복하고 있으

니까요. 물을이라도 터질듯 낙담해하던 상이었는데 말입니다.

여느때 보다 적극하게 "Don't worry"를 외치고 싶은

웃기는 그녀의 물을 물어 위치를 바꾸어 새 폴드를 부산

하고, 등에 배개를 받쳐주고 그리고는 방한 유난히 많

은 출들을 하나하나 켜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란 이유, 잠

에인이라면 유난히 냄새에 민감한 그녀의 방한, 그

많은 출들을 이해하는데 걸었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러

고, 런던에 갔을때 Leicester square의 중국인 거리에서

큰 맘먹고 사았던 일본항창 '하나노 하나'라고 일본식으로

읽는 새기 손가락을 손톱만한 크기의 그것이 하나 끼어나

있는 물을 부쳤습니다. 차례대로, 제사때면 허리를 꾀워

울리는 우리네 한처럼, 불을 부치면 불꽃없이 사그라질듯

타드러기며 색깔마다 다른 향취를 내고는 그 형태 고스란

히 제로 남아버리는 그 혼조. 그러면서 나는, 감히 불편파

위는 어울리지 않을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한월이라는 한

시적 시간동안, 경향이라는 복장을 소명또한 있을수인

나이지만, 넘지 못해 2차전 족집을 밟게 살아온,

그 간 시간을 지탱하며 그 순간 자신의 손녀팔이보다도 이

린 이국의 작은 소리에게 가장 비밀스런 부분까지 보여야

하는 그녀의 마음을 느끼며 기다립니다. 그녀에게는 어디까지나

코리아 퍼퓸(korea perfume)뿐입니다. 매일같이 찾았으

는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어쨌든 그들은 코리아입니다. 포

르투갈에서의 연수와 북이프리카 대남아프리카로 한국적인

무엇이나 남겨놓지 못한 나였지만 이제 어느새 향취를 영

국인 가정 구석구석에 빠인 나의 흔적, 내 국어의 흔적을 느

길 때 삶을 뿐이하게 내 일상의 기습을 적셔옵니다. 요크

서부당을 빙고, 영국로프트를 시험하며 하루하루 점점해

있는 그녀에게 떠벌거릴 능력을 하고 훈체이를 빙고 공원

에 내가 말을 뒀던, 무엇하나 묵직한 힘은 하루였지만

방울을 닦고 혼자만 지금 빙판에 어지러히 흐르

놓은 물감이며 빙돌도 치우지 않은데 다시 향을 피웁니다.

그 향기속에 고국의 한 가운데에 그리움과 작은 보람

을 함께 품어 올리며...

돌이가는 날이면 그냥 한국으로 가버릴끼라는 생각을 해

보곤 했던 그 시간들. 그때 그사람이 그랬더였습니다. '에

가 말이 커서 오겠네' 하고, 이제 그장을 거치고 여우를 갖

는 모습이 그때 들었던 '성장' 일련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메리는 향향의 깊숙한 품위를 한국의 것으로 기

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일본의 하나님이라고, 나

는 동양의 향이라 말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어디까지나

코리아 퍼퓸(korea perfume)뿐입니다. 매일같이 찾았으

는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어쨌든 그들은 코리아입니다. 포

르투갈에서의 연수와 북이프리카 대남아프리카로 한국적인

무엇이나 남겨놓지 못한 나였지만 이제 어느새 향취를 영

국인 가정 구석구석에 빠인 나의 흔적, 내 국어의 흔적을 느

길 때 삶을 뿐이하게 내 일상의 기습을 적셔옵니다. 요크

서부당을 빙고, 영국로프트를 시험하며 하루하루 점점해

있는 그녀에게 떠벌거릴 능력을 하고 훈체이를 빙고 공원

에 내가 말을 뒀던, 무엇하나 묵직한 힘은 하루였지만

방울을 닦고 혼자만 지금 빙판에 어지러히 흐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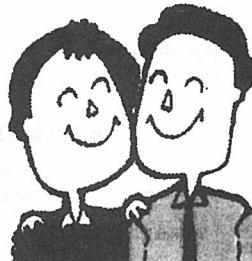
놓은 물감이며 빙돌도 치우지 않은데 다시 향을 피웁니다.

그 향기속에 고국의 한 가운데에 그리움과 작은 보람

을 함께 품어 올리며...

이은의  
<서양·포르투갈 3 휴학>

## 사랑은 인간과 인간이 하는 것이다



주고받게 되었다. 형은 80년 광주항쟁에 일병계급장을 달고 참가한 독특한 경감도 있었다. 형은 그 당시의 암울했던 사회적 상황과 광주의 경험을 내려기 해주기도 했고, 인생 선에서 어려운 기회를 주기도 했다. 어느 날, 형은 내게 자신이 계획을 알렸다. 그리고, 자신이 본 많은 개인들의 모습과 현재 형이 느끼는 어려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형과 함께 형이 느끼는 어려고민은 형과 함께 형을 이해하는데 걸었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인생 선에서 어려운 기회를 주면서 형은 그녀의 방한, 그 많은 초들을 이해하는데 걸었던 한 예였다. 형은 그녀에게 그녀가 입던 헤리 쪽잠이 너던 시간들, 누님이 자국마저 날카롭게 펼쳐져 있을 모양이 그리운 날이면 밤을 해서 먹으며, 깨끗모두 섬용에 펼면 날이갈 듯한 밤을 유로 눈을 끌 때마다 헤리지기 어려울, 걱정이 와서 고국에서부터 멀길을 걸어온 사람앞에서 그것이 너무 당황스러워 아파일개도 타월을 얼굴에 묻고 난 광경을 봤더되었습니다. 근처의 베리의 방이거나 냄새와 입모양으로 의사소통이 되기까지, 영국인 말없이 불을 부쳤습니다. 차례대로, 제사때면 허리를 꾀워울리는 우리네 한처럼, 불을 부치면 불꽃없이 사그라질듯 터드러기며 색깔마다 다른 향취를 내고는 그 형태 고스란

이자들이 소식지를 만드는 등 공개활동을 하려고 있다며 미치광이들의 은밀한 짓으로 뿐이 아니라 뿐이 아니라 한디'는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역으로 중앙일보의 흡족한(?)사를 통해 이 땅에서 통증에서 인권운동이 생겨났다는 기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95년은 동성애자들의 경계활동이 인권의 주목을 받던 한 해였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놀라지는 비단과 논술속에서 지금은 소리이기로 한 그 형이 생각나곤 합니다.

외대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결성되어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쁘다.

김정아와 비단과 혼오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우들에

게 하고픈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지

되고 벌금되는 동성애에 대해 경찰적인 비난보다 먼저 그들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동성애에 대해 올바로 다들어 비판을 해도 결코 늦지 않기 때문이다.

유기있었던 풀길을 내딛는 와이 동성애자 모임의 앞

날에 전진과 희망이 있기를 긴밀히 기대한다.

신민철  
<사회·정의3>

### <11>정심대도탑

모현회사로 들어가기 전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이상하게 생긴 바위덤불이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름아닌 정심대도탑이다. 이탑에 새긴 글을 보면 1988년 4월 20일에 이것을 세웠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학교 광장과 길을 걸어온 그 옆에 정심대도탑이 있다. 그 옆에 새겨진 정심대도(正心大德)라는 글자는 그 탑에 새겨진 경심은 미친 듯이 빙그레에서 주목을 받던 한 예였다. 동성애에 대해 놀라지는 비단과 논술속에서 지금은 소리이기로 한 그 형이 생각나곤 한다.

여기서 이탑에 얹힌 이야기를 한 번 짚어보자. 우리 학교에서 떠돌고 있는 풍물에 따르면 원산 음악가 넘치는 형세에서 원산에 있는 남자기 한해에 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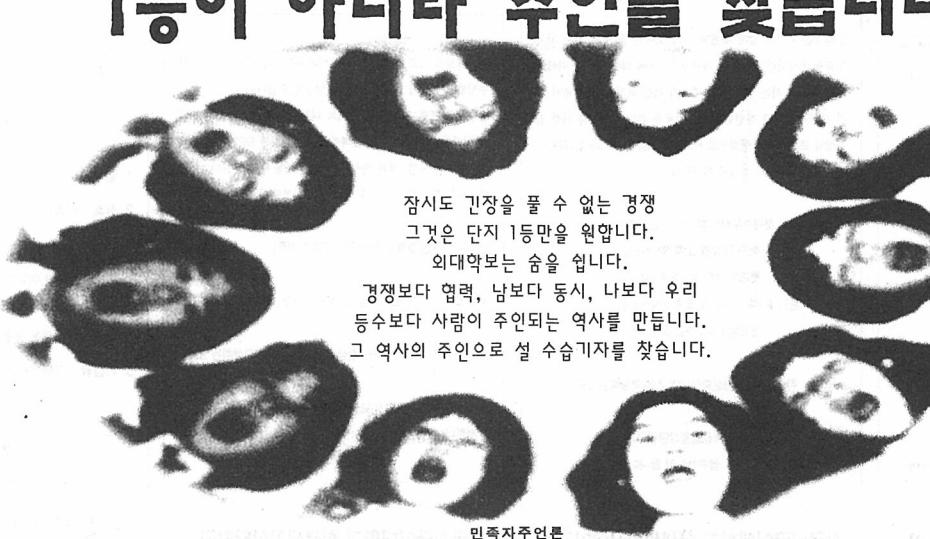
꼴로 명수당에 빠져 죽는다고 한다. 그리하여 결국

음악을 누루기 위해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이 탑

을 세웠다고 한다.

서운경 기자

## 1등이 아니라 주인을 찾습니다.



### 모집부분

- 대학부
- 사진부
- 문화부
- 사회부

### 모집기간

3월 27일 까지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경쟁  
그것은 단지 1등만을 원합니다.

외대 악보는 숨을 쉽니다.

경쟁보다 협력, 남보다 동시, 나보다 우리  
등수보다 사람이 주인되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 역사의 주인으로 설 수습기자를 찾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 모집 방법

- 노술 및  
인소개서(27일)
- (28일)  
의

서울 961-4152, 4466  
부인 0335) 30-4112